원가공급 앞두고 아파트 소나기 공급

광주·전남 올 2만가구…상반기에만 1만 3,590가구 집중

9월 분양가 상한제 등 시행, 건설사들 "빨리 빨리"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아파트 2만여가구가 신규로 공급될 전망이어서 지역 내 부동산시장에도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을 앞두고 상반기에만 1만4천여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어서 1·11부동산대책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분양 후폭풍'이 가시화되고 있다.

16일 부동산포털 사랑방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에서 신규로 공급될 아파트는 총 1만9천91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5월에 전체 물량의 60%인 8천679가구가 공급되는 것을 비롯, 상반기에만 1만3천590가구가 분양된다.

이처럼 상반기에 공급이 집중된 것은 건설업체들이 9월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을 앞두고 조기 분양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와 남구를 중심으로 신규공급이 잇따르면서 신규 공급물량이 1만4천393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광산구는 수완·하남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5천615가구가 공급되며, 남구는 진월지구와 양림동 등에서 3천884가구가 분양된다.

업체별로는 대주건설이 수완지구와 용봉지구 등에서 3천594가구를 분양해 민간업체 가운데 공급물량이 가장 많고, 현진 1천600가구, 호반건설 1천133가구, 대림산업 778가구, 쌍용건설 622가구, GS건설 596가구 등이다.

주택공사는 북구 용두동, 남구 양림동 등에서 2천399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비롯, 총 3천660가구를 분양한다.

전남에서는 삼환기업이 순천시 매곡동 재건축아파트 1천88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 총 8개 단지에서 4천698가구가 공급된다. 무안 남악신도시에서는 오는 3월 경남기업과 부영건설이 각각 488가구, 610가구를 분양하는 등 광주·전남 전역에서 풍성한 주택공급이 예고돼 있다.

하지만 최근 광주·전남의 미분양물량 적체 등으로 인해 업체들이 분양시기를 하반기 이후나 내년 이후로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공급물량 자체가 유동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광주의 경우 부동산시장 위축과 주택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 말 현재 미분양물량이 1만여세대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계약률이 50%만 돼도 성공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도로 침체된 상황"이라며 "특히 광주·전남은 수요자들의 관망세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력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어서 미분양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2007년 광주·전남 아파트 공급 계획

□ 광주

월	공급업체	공급방법	위치	평형	총가구수
1	대주건설	분양	서구 풍암동 (5차)	35~75	278
2	진흥기업(주)	분양	서구 금호동	49	333
3	남광토건(주)	분양	광산구 운남동	31~47	419
3	주택공사	국민임대	북구 용두동 2	20/22	711
3	현진	분양	광산구 하남지구	38~77	572
3	대주건설	분양	광산구 수완지구 C12-5BL	45	138
3	대주건설	분양	광산구 수완지구 13-1, C13-2BL	45~53	538
3	대주건설	분양	광산구 수완지구 C17-2	35~39	1,207
4	호반건설	분양	서구 광천동	34~52	1,133
4	주택공사	분양	남구 양림동 1BL	31/33/44	987
4	대주건설	분양	북구 용봉 4차	37~52	301
5	대주건설	분양	서구 마륵동	38~50	255
5	대주건설	분양	남구 주월동	45~57	474
5	GS건설(주)	분양	북구 신용동	33~58	596
5	주택공사	국민임대	남구 진월 A-1BL	16/19/24	355
5	주택공사	국민임대	남구 진월 A-2BL	16/24	384
5	부영	분양	광산구 수완지구	35	449
5	송지건설	분양	북구 양산동	34, 36	160
6	쌍용건설(주)	분양	서구 쌍촌동	40~64	622
7	주택공사	국민임대	남구 양림동 2BL	15/19/21/25	949
8	한일건설(주)	분양	남구 지석동	34~47	448
9	현진	분양	광산구 수완지구	미정	1,028
9	대주건설	분양	북구 동명동	48~56	116
9	대주건설	분양	남구 주월동	48~54	287
11	대림산업(주)	분양	광산구 우산동	33~51	778
11	주택공사	분양	북구 용봉 2	23/24/33	274
하반기	중도건설	분양	북구 운암동	32/33/42	115
미정	이지건설	분양	광산구 수완지구	33	486

□ 전남

월	공급업체	공급방법	위치	평형	총가구수
1	부영건설	분양	목포시 옥암지구 1, 2BL	33, 35	970
3	경남기업(주)	분양	무안군 남악신도시 26BL	35~36	488
3	부영건설	분양	무안군 남악신도시 24BL	38, 45	610
5	모아건설	분양	목포시 옥암지구 14BL	24, 28	522
5	삼환기업(주)	재건축	순천시 매곡동	16~46	173
5	삼환기업(주)	재건축	순천시 매곡동	24~53	915
7	동양건설산업	분양	무안군 남악신도시 21BL	34	488
하반기	한국종합건설	분양	목포시 옥암지구 12BL	38~53	532

중·동남아 등 싸구려 가구 국내 명품가구 둔갑 판매

소보원, 소비자들에 주의보

A씨는 지난해 1월 유명 가구 대리점을 방문, 국내산 고급 제품으로 공장에서 배송까지 직접 책임진다는 판매원의 설명에 식탁을 구입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것은 대리점에 전시돼 있던 전시품이었고 그마저도 의자 뒷부분에 금이 가고 색상이 균일하지 않은 불량 제품이었다.

대리점에 확인한 결과 이 제품은 국내산이 아니라 중국에서 조립한 제품으로 밝혀져 A씨는 대리점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중국·동남아 등 저가 수입가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거나 품질에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배송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소보원에 접수된 가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4천186건으로 이중 263건이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졌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263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파손, 도장불량, 조립불량 등 품질하자에 따른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8%(123건)로 집계됐다.

품질하자 피해 123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흠집·균열·파손 등 가구손상이 전체의 56.1%였고 휨.꺼짐.틀어짐 등 가구형태 변형이 14.6%(18건), 변색·벗겨짐 등 도장불량이 9.8%(12건)였다.

또다른 피해유형으로는 주문과 다른 제품을 배송하거나 배송전 해약 요구를 거절하는 등 계약관련 피해가 31.2%(82건)였고 부실한 애프터서비스(A/S)에 따른 피해가 15.2%(40건)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가구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구매매 표준약관 마련, 품질 미표시 제품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가구연합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현대차 노사 대화 재개

이헌구 前위원장 2억 수수…노조 도덕성 타격

정부 공권력 투입 검토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사태가 16일 전임 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노사간 대화가 일단 시작돼 노사갈등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이날 오전 만나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협상과 필요할 경우 노사대표협상을 병행하기로 하고 오후부터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노사 양측은 울산공장에서 만나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사 실무자회의와 대표자회의를 병행하기로 합의했다.

노조측은 "내일까지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파업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밝혀 17일 예정된 주·야 각 6시간의 파업은 강행하더라도 18일 이후 파업수위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울산지검 특수부는 이날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회사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헌구(46)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현대차 제 10대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3년 7월 하순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암자에서 회사측 고위관계자를 만나 "파업을 철회하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이끌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2005년 간부 취업비리, 지난해 간부 기념품 납품비리에 이어 노조사상 최초로 임단협과 관련된 위원장 비리가 드러나 노사간 대화에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울산지법은 시무식장 폭력과 잔업거부 등의 혐의(폭력,업무방해)로 회사측 고소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유기 노조위원장에 대해 16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체포영장이 신청된 김모 부위원장 등 노조임원 4명에게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조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이날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中企 뉴라이트 전국연 발족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뉴라이트 전국연합 발기인대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 참석자들이 오른손을 든 채 결의문 낭독에 동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산 불교뉴라이트연합 상임공동대표, 김진홍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 강대표, 신국환 국민중심당 대표. /연합뉴스

1억이자 1년새 74만원 늘었다

시중銀 주택대출 금리 잇따라 7%대 진입

수도권 집값 잡으려다 지방 서민들 피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잇따라 7%대에 진입하면 주택대출을 받은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정금리가 아닌 시중 연동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은 "수도권 집값 잡기에 동원된 금리 정책이 지방 서민들의 가계를 옥죄고 있다"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는 이날 연 5.91~7.01%로 연 7%대를 넘어섰다. 우리은행도 연 5.81% ~7.11%를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예컨대 1년전 신한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현시점에서 대출금리가 1년전에 비해 0.74%포인트 올라 연간 74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현재 국민은행은 5.99~6.99%, 하나은행은 6.13~ 6.83%의 금리를 적용 중이지만 CD금리가 계속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조만간 7%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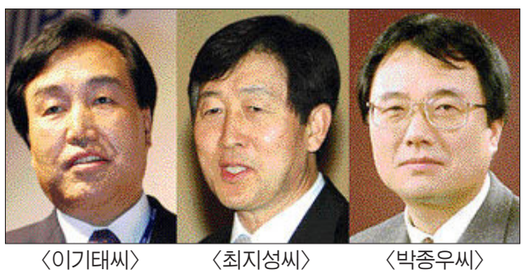
주택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는 15일 기준 4.93%로 2002년 11월 8일(4.93%) 이후 4년2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3일 지준율 인상 조치가 시행된 이후 1월 15일까지 0.13%포인트나 급등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한은의 유동성 조이기가 계속될 경우 CD금리가 5%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한편 CD금리가 오르면서 CD금리 연동 예금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를 예금형태로 바꾼 우리은행의 'CD플러스 예금'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2조원을 돌파했고, 시장금리에 연동해 금리가 바뀌는 예금상품인 '오렌지 정기예금'도 10조4천억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은행권에서 신한은행이 처음 선보인 변동금리부 적금인 '탑스 CD연동적립예금'도 한달 만에 19억원어치가 팔렸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기태씨〉 〈최지성씨〉 〈박종우씨〉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

이기태사장 기술총괄 부회장 승진

삼성그룹이 이기태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을 기술총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모두 12명에 이르는 사장급 이상 고위경영자의 승진 또는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신임 이 부회장 이외에 성영목 호텔신라 부사장과 김낙회 제일기획 부사장이 각각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고 이순동 전략기획실 부사장(기획홍보팀장)이 사장 승진과 함께 전략기획실장 보좌역에 임명됐다.

또 삼성전자 최지성 디지털미디어총괄 사장이 정보통신총괄 사장으로, 디지털프린팅사업부 박종우 사장이 디지털미디어총괄 사장 겸 디지털프린팅 사업부장으로, 생활가전총괄 이현봉 사장이 삼성전자 서남아총괄 사장으로, 반도체총괄 메모리제조담당 김재욱 사장이 기술총괄 제조기술담당 사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관심을 모았던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학수 그룹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의 거취는 유임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후속 일반 임원 인사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전무로 승진하고 그룹전략기획실내 일부 전보, 승진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파업인한 車 출고지연 배상 받을 수 있나?

소비자단체 "공정위 약관 개정하면 가능"

소비자단체가 자동차업체의 노조 파업으로 인해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를 배상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에 따르면 소시모는 자동차업체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될 경우 업체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배상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매매 표준약관을 개정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는 노조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돼 소비자가 계약한 차량을 인도받지 못할 경우 그 피해를 자동차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약관은 정부조치나 천재지변과 함께 노조의 쟁의행위 등으로 제조와 인도가 지연될 경우 회사측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있다.

약관이 개정될 경우 자동차 업체는 노조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단 경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단 소비자단체의 심사청구가 접수된 이상 표준약관의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현행 약관에도 판매업체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소비자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있기 때문에 약관의 개정 필요성은 크지 않은 상태이며, 결국은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배상의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새 1만원·1천원권 화폐 22일 부터 공급

현재의 지폐보다 크기가 대폭 축소되고 색상도 밝아진 새 1만원권과 1천원권 지폐가 오는 22일 시중에 공급된다.

한국은행은 22일 오전 8시 한은 본점에서 이성태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행개시식을 갖고 본점 및 16개 지역본부를 통해 각 금융기관에 새 지폐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금융기관 영업개시 시간부터 한은과 시중은행에서 새 1만원권 및 1천원권을 인출할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새 은행권에 맞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60~70% 가량 교체한 상태이다. 기존 ATM에서는 새 은행권을 인출할 수 없다. 한은은 1만원권과 1천원권 가운데 일련번호가 가장 빠른 1~100번은 보기(견양)은행권으로 골라내 한은 화폐금융박물관에 전시하고 이후

101번부터 1만번까지 9천900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매 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주)부영 목포 옥암지구 '사랑으로' 970가구 분양

(주)부영은 목포시 옥암동 택지개발지구 일원에 '사랑으로'아파트 97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11~18층 14개동 규모에 33평형 102가구, 35평형 868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3월과 5월 각각 입주할 수 있다. 서남해안 개발의 중심축인 남악신도시 입구에 위치하며 1, 2번국도 접근이 용이하다.

분양가는 33평형이 1억6천730만원이며, 35평형은 1억7천740만원이다. 최대 9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16일부터 목포 상동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 실시한다. 문의는 고객만족센터(1577-5533)와 인터넷 홈페이지(mokpo.booyoung.co.kr)로 하면 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